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최재혁	소속(학부/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파견 학기	2019년 1학기		파견 국가	미국
파견 대학	네바다주립대학교, 라스베이거스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복학하는 첫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교환학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전역 후 사회 적응이 매우 걱정이 되었는데 그 사회 적응의 방법 중 하나로 교환학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군대를 갔던 친구들이 전역 후 그대로 복학하여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환학생에 관심이 생겼고 마침 원래 미국에 대한 로망이 있어 교환학생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먼저, 네바다주립대학교 라스베이거스 캠퍼스를 UNLV(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UNLV 파견대상자는 Student Intern이라는 자격으로 상대 학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VISA는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DS-2019와 DS-7002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UNLV 담당자 분과 메일을 주고 받다보면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문서들은 최종적으로 UNLV에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면 그걸 수령하고 VISA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 문서를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8년 12월 4일에 미국에서 우편이 출발해 2018년 12월 10일에 받았고 2018년 12월 12일에 VISA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볼 수 있는 게 2019년 1월 9일이라 이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출국 예정일은 2019년 1월 20일이었고 항공권은 2018년 12월 20일, 딱 한 달 전에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항공권은 좀 더 일찍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교환학기 종강 후 일정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왕복보다는 편도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VISA 인터뷰는 저처럼 촉박하게 잡는 것보다 출국 3주~4주 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인터뷰 후 3일 만에 VISA가 발급되었습니다. 인터뷰 수준은 영사 분들마다 다른 것 같지만 무엇을 하러 미국을 가는지,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공이 무엇인지 등을 물어봅니다. 명확하고 자신 있게 자신이 무엇을 하러 가는지,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만 잘 준비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J-1 인터뷰는 쉬운 편이라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수강신청은 UNLV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최소 1과목~최대 2과목입니다. 과목은 특별히 제한은 없는 것 같지만 선수과목은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 또한 담당자분에게 신청을 하게 될 건데 신청 유무만 선택 가능한 것 같고 어느 기숙사를 사용할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Tonopah Residence Complex라는 기숙사에 배정되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준비할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입학허가서는 UNLV의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DS-2019 서류만 오면 VISA 받고 출국하면 됩니다.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입국심사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국 전에 영어를 좀 미리 공부를 해두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가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영어 공부를 해두고 그 공부한 것을 미국에서 직접 써먹는 게 진정한 활용인 것 같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UNLV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McCarran 국제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 대중교통으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캠퍼스는 생각보다 커서 면적만으로도 우리 학교의 2배~3배 정도 됩니다. 기후는 매우 건조하고 겨울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더운 곳입니다. 사막 위의 도시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 겨울엔 춥고 습기가 없어 여름엔 건조한 사우나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한국보다 1~2개월 계절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4월 말부터 최고기온이 26~29도를 찍더니 5월은 내내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이었습니다. 6월부터는 40도 이상이었습니다. 보통 8~9월까지 덥다고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이상기후로 눈도 왔으며 비도 꽤 자주 와서 라스베이거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주변에는 Strip이라 불리는 시내가 있는데 흔히들 아시는 호텔 천국이 여기입니다. 우버를 타고 5분이면 갑니다. 호텔들과 상점들, 식당들 등등 모든 시설이 모여 있고 관광객 천국입니다. Strip보다 좀 더 위쪽에는 UNLV에서 우버타고 10분 가량 거리에 Downtown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밤에는 축제를 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끔 파티를 합니다. 기회 되면 참여해보세요.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업은 교수님마다 다르지만 한국하고 그리 다르지는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교환학생이라고 점수를 잘 주거나 덜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Computer & Network Forensics 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이 과목의 경우, OX 문제 반, 서술형 반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거의 시험시간 2시간에 총 60문제~80문제) 시험은 Mid Test1, Mid Test2, Final Test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어려우면 녹음해서 나중에 복습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강과목과 별도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게 매 학기 제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먼저, 기숙사 입사는 선택입니다. 기숙사가 아니라 학생 아파트나 일반적인 주택에서도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와 학생 아파트가 비용적으로 좀 더 경제적이고 기숙사와 학생 아파트 사이의 장단점은 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달라 명확히 어디가 낫다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치안과 교내 활동을 생각한다면, 기숙사가 좋은 선택입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는 보통 2인실 배정이 되는데 저만 한국인 룸메이트였고 다른 친구들은 현지 대학 친구들과 같이 방을 썼습니다. 제가 지냈던 Tonopah Residence Complex는 옆방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의 방이었습니다. 즉, 화장실 하나당 4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장실에 샤워시설도 있습니다. 냉장고는 방에 없지만 만약 룸메이트가 가져온 게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기숙사비는 3000달러가량(19년 1월 환율 기준 342만원) 들었고 Meal Plan이라고 불리는 기숙사 식사비용은 2000달러(19년 1월 환율 기준 228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숙사 식사 플랜은 기본적으로 150회 식사와 교내에서 쓸 수 있는 Dining Dollar를 500달러 정도 줍니다. 식사권 150회 중 145회는 자기 자신이 쓸 수 있으며 나머지 5회는 친구를 초대하여 같이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평일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되며 주말에는 Brunch(아침 겸 점심), 저녁으로 제공됩니다. Dining Dollar는 교내 Student Union에 있는 Starbucks, SoHo, Panda Express 등의 음식점과 교내 편의점(POD라고 합니다.), 교내 서점, 교내에 있는 여러 카페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권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Dining Dollar로 식권을 사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택시처럼 자주 타는 Uber비, 버스비, 시내에서 식사, 쇼핑 비용 등이 되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Uber는 2명 이상일 때 타는 게 유리하고 Strip까지는 2명이 가면 1명당 5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나가시면 아마 8~10달러가량 생각하셔야 합니다. Lyft라는 경쟁 서비스도 있으니 항상 Uber와 비교하시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의 식사 비용은 비싼 편입니다. 보통 한 끼에 12~16달러 사이로 최소 비용이 들고 Tip도 줘야하기 때문에 한끼당 16~20달러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니다. 버스는 거의 직선 Route만 달립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해서 이용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비용 때문에 가끔 이용하게 됩니다. Single Ride라고 1회 탑승권은 현금 2달러이고 가끔 UNLV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할인해달라고 하면 1달러로 할인해줍니다.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10번 중에 7번은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Downtown 가는 버스는 CX, 공항가는 버스는 제1터미널은 109번, 제3터미널은 CX, Strip 가는 버스는 201번입니다. (처음 입국하실 때 대부분 제3터미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미널 2층에 CX 타는 곳이 있는데 저도 많이 헛갈려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교통카드는 공항 제1터미널에 109번 타는 정류장에 보시면 있는데 학생은 잘 구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가성비 0.)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UNLV에서 저희 교환학생들을 담당하는 담당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분 밑에 우리 학교 국제교류도우미처럼 교환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 자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매주 화요일에 Social Table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한 주간의 일을 이야기 나누고 그랬습니다. 우리 금오공대에서 파견 가는 학생들은 전부 Student Intern이라는 자격으로 가는데 학교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활동입니다. 다만, 담당 교수님마다 분야, 프로젝트, 그리고 무엇을 할지가 전부 다르니 미리 잘 알아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프로젝트 없이 그냥 공부만 하다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미국 입국 후 담당 교수님과 첫 미팅 때 뭔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UNLV에서는 각종 동아리도 참여하실 수 있고 Christian이시면 ICF(International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동아리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CF에서 다양한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 태권도 동아리, 유도 동아리, 요가 동아리, 캠핑 동아리 등 많습니다. 학교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은 매달 25달러를 내면 이용하실 수 있는데, 수영장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보통 교환학생들의 연구실이 대부분 SEB라는 빌딩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도 정말 모든 시설이 좋습니다. Student Union은 학생회관 같은 곳입니다. 안에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으니 돌아다녀보시면 됩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여기는 비가 잘 안 내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산을 보기가 힘듭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재채기를 하는 사람에게 "God bless you"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는 "Thank you" 라고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약간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매번 대화를 "How are you?"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물으면 대답해주고 다시 상대에 "How about you?"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What's up man?"이라고 올 경우, "Not much"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좀 많이 힙한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특히 거의 다 힙합 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다니기도 합니다. 좀 신경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또 이곳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불법인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 조심해서 문제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버팔로 소스의 냄새와 맛은 한국인들은 그다지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냄새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종업원을 부르는 벨 같은 게 한식당 빼고는 없습니다. 보통 팔을 들고 있으면 종업원이 옵니다.

여기는 총 소지가 되는 나라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늦게는 Strip과 Downtown, 교내를 제외한 다른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캠퍼스를 제외한 주변 지역은 치안이 좀 안 좋다고 유명합니다. 룸메이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룸메이

트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는 차이나타운 내에 작게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Uber 타고 15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Greenland 라는 엄청 큰 한인마트가 있습니다. Strip에도 Kimchi 식당 등 한식당이 좀 있습니다. 학교 주변 마트로선 북쪽에 Target 이라는 대형 마트, 24시간 편의점인 Walgreens와 남쪽에 Vons 라는 중형 24시간 마트, 이들의 중간 정도 위치에 세븐 일레븐이 있습니다. Wall Mart는 좀 거리가 돼서 잘 안 갔습니다. 식수 같은 경우, 기숙사에 정수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매번 물을 사먹었습니다. 500ml짜리 24개 정도 사서 먹으면 됩니다.

중간 중간에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LA까지 버스로 4시간, San Diego까지 버스로 6시간, San Francisco까지 버스로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가지고 차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3개월 이상 지난 후에는 미국 서부 쪽에서는 렌트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생각보다 한국인이 꽤 많습니다. 영어 실력 늘리기가 목표라면 다른 한국인들보다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어 영어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미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미국을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정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학교생활 4개월, 개인적인 여행 1개월을 통해 짧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라스베이거스가 제2의 고향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UNLV가 제2의 모교인 느낌도 들어 신기하기만 합니다. 살아보니 미국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치안이 도시마다 다르고 총기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UNLV가 있는 라스베이거스는 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본 다른 도시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기에 도시마다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은 한국과 비슷하게 살기 바쁘다면 라스베이거스는 비교적 여유롭게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여기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아래 사진 첨부)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그림 1 - UNLV 캠퍼스 풍경



그림 2 - UNLV Student Union 건물



그림 4 - UNLV Lied Library





그림 7 - UNLV Tonopah Residence Complex (기숙사)



그림 8 - UNLV Tonopah Residence Complex 2인실



그림 9 - UNLV Bookstore (전공서적, 기념품 판매점)



그림 10 - UNLV 기숙사 식당



그림 11 - 가끔 Student Union 근처에서 열리는 축제/행사



그림 12 - UNLV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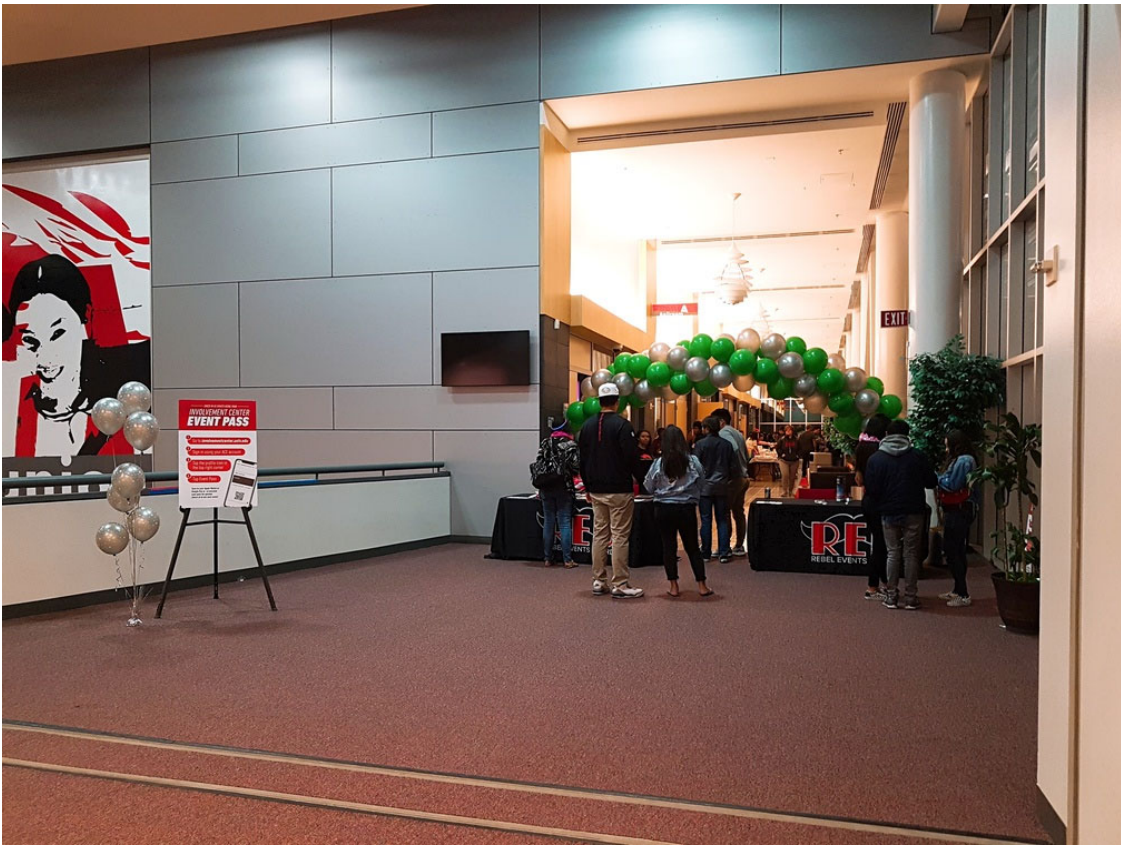


그림 13 - 가끔 열리는 UNLV 파티



그림 14 - UNLV 대학농구 경기



그림 15 - UNLV 연구실



그림 16 -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거리



그림 17 -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거리



그림 18 -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거리



그림 21 -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거리



그림 22 -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거리



그림 23 - 라스베이거스 다운타운 축제